

성별과 연령층에 따른 병·의원의 의류 제품 소비 경험 -환자복 및 의료보조용품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정인희[†] · 이윤정* · 유효선** · 최혜선*** · 정혜원**** · 홍경희***** · 박명자*****

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시스템공학부, *경인교육대학교 생활과학교육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FTC 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The Hospital-Clothes Consumption Experience of Consumer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A Suggestion for the Improvement of Patient Gowns and Medical Supplies-

Ihn Hee Chung[†] · Yun-Jung Lee* · Hyo Seon Ryu** · Hei-Sun Choi***
Haewon Chung**** · Kyunghi Hong***** · Myung-Ja Park*****

School of Advanced Materials and Systems Engineer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Dept. of Practical Arts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TC Center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접수일(2009년 10월 7일), 게재확정일(2009년 11월 16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ctual hospital-clothes consumption experience of consumer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An all age survey was conducted among male and female ex-patients in Korea nationally. From data collected during April and May 2009, a total of 513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analysis, two-way ANOVA, and MANOVA using SPSS 10.1.4.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hospitalization ratio was higher in the male group than in the female group and increased with age. Many hospitalizations were taken to the department of orthopedics, internal treatment,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surgery. The satisfaction with patient gowns was low regarding size, fabric touch, color and pattern, psychological comfort, and holistic satisfaction. Specifically, the stiffness of the fabric, cheerless colors, and the limited number of sizes were the main complaints; size dissatisfaction was expressed strongly by females. About 35% of respondents showed a positive attitude to wear premium patient gowns. Various medical supplies were used and different items were utilized according to gender and age of patients. Uncomfortableness of medical supplies were highly related to laundry and fabric touch.

Key words: Hospital clothes, Patient gown, Medical supplies, Consumption experience; 병원 의류 제품, 환자복, 의료보조용품, 소비 경험

[†]Corresponding author

E-mail: ihnhee@kumoh.ac.kr

본 논문은 건강의복연구회의 사업으로 연구되었음.

I. 서 론

의류학은 종합학문이며 응용학문으로서 그 연구내용도 의복구성, 의류소재, 의류관리, 피복환경, 복식 사회심리, 복식사, 복식미학, 패션마케팅 등 매우 다양하다. 의류학은 가정에서의 의생활에 관심을 두고 발전하였으나 이제 글로벌 산업 및 다양한 미시·거시 환경적 측면으로 확대되어 연구되고 있는 만큼 학문으로서의 의류학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점점 증대되고 있다.

병·의원은 인간 생로병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일상생활의 영역에 편입된 삶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의원은 의류학적 접근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접 환경이다. 실제로 병·의원에서 사용되는 의류 제품은 환자복, 진료복, 침구류, 의료보조용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수량도 많다. 또한 환자복에 의해 형성되는 국소기후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므로 피복환경학적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생활과학의 한 분야인 식품영양학에서는 일찍부터 병·의원 환경에 관심을 두고 여러 연구를 수행해 왔으나(감순옥 외, 2007; 신민자, 서경화, 2003; 황라일, 권진희, 2008), 의류학 분야에서의 병·의원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이었다. 즉, 아직까지 병·의원 환경에서의 의류 제품 사용 현황이나 사용자 만족도 등이 포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주로 환자복 개발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섬유고분자 공학과 연계하여 의료용 텍스타일(medical textile)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환자복에 대한 연구는 주로 디자인과 의복구성학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송정흙, 송정아(1993)는 다목적 환자복을, 황요영 외(1999)는 프리사이즈 환자복을 개발하였고, 김영인 외(2001)와 이예영 외(2006)는 진료과의 특성에 맞는 환자복을 디자인하였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간병인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기동부자유환자들을 위한 환자복 개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공혜정, 2007; 김정현, 2002; 김혜경, 1999; 문은희, 2003; 박혜원, 류은정, 2008; 박혜원, 박인조, 2007; 한경희 외, 2002). 유미애, 박옥련(2004)은 환자가 선호하는 색상이나 문양 등을 반영하여 미적인 면을 중시한 디자인을 제시하였으며, 박혜원 외(2007)는 치

매환자 보호 의미의 심볼을 개발하고 이를 치매 환자복의 직물 디자인 모티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물 디자인 개발 자료를 제공하였다. 한편, 환자복의 관리 학적인 측면에서 박상희(2004)는 세탁 후 오염이 제거되지 않고 수축 및 색이 바래는 등 내구성이 떨어지는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류은정, 박혜원(2006)은 세탁방법이 규정되고 원부자재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환자복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의료용 텍스타일의 연구내용은 비이식용 소재(non-implantable materials: 상처용 의약재료, 붕대, 반창고 등), 체외용 장치(extracorporeal devices: 인공 심장, 간 및 폐), 이식용 소재(implantable materials: 봉합사, 혈관, 인공 인대, 인공 관절 등), 건강·위생 제품(healthcare/hygiene products: 침대보, 의복, 수술 가운, 직물, 걸레 등)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유효선, 박명자, 2009). 이 중 병·의원 의류 제품의 범주에 속하는 건강·위생 제품의 개발 및 연구경향을 소재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현숙 외(2008)에서 실제 환자복으로 사용되는 면 직물을 키토산/은나노 혼합용액에 가공처리한 결과, 200ppm 농도에서 가공 처리된 면직물의 경우 우수한 항균성과 세탁견뢰도를 보였으며, 키토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우수한 소취성으로 환자복 소재의 위생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현미(2002)는 일회용 의료 제품의 수입배급업체인 유한킴벌리사의 의료용 의복에 대해 소재특성, 의복의 종류와 디자인, 시장성, 사용 실태와 적용가능 분야를 조사하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의료용 의복을 개발·제작하면서 소재로는 키토산 가공을 하고 방향성, 발수성, 내구성, 유연성을 부여한 친환경적 기능성 한지를 사용하였다. 조진숙 외(2001)는 착용시험과 물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실금 팬티를 제작하여 치수 만족도 및 외관과 물성 등을 향상시켰다.

이와 같이 환자복 및 의료용 텍스타일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개별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의류학의 관점에서 병·의원 의류 제품 전반을 조망하는 시각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의 병·의원 이용 실태와 구체적인 의류 제품 소비 경험을 폭넓게 조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환자복 및 의료보조용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성별과 연령층에 따라 요구되는 개선 측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주목한다. 최

근 병·의원들은 질환을 치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만족도가 높은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로써 의류학의 관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병·의원 입원 경험 차이를 알아 본다.
- 연구문제 2.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환자복에 대한 평가 차이를 알아 본다.
- 연구문제 3.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의료보조용품 사용 경험 및 불편 사항 차이를 알아 본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의류학 여러 분야의 전공 교수 9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하였다. 측정도구는 병·의원 입원 경험, 병·의원 만족도, 환자복에 대한 속성별 만족도, 환자복에 대한 불만족 경험 및 개선 요구사항, 프리미엄 환자복 채택 의향, 의료보조용품 사용 경험 및 불편사항,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병·의원 입원 경험과 관련하여 먼저 최근 10년간 입원 횟수를 숫자로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 입원한 병·의원 소재지, 유형, 진료과를 기억에 남는 경험 순으로 5개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병·의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입원한 병·의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5점 척도(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족, 매우 불만족)로 응답하게 하였다.

환자복 만족도 척도는 사이즈, 청결, 소재의 촉감, 소재의 색상과 문양, 형태, 착탈의 편리성, 동작 편리성, 화장실 사용 편리성, 봉제 상태, 솔기의 편안함, 치료·처치의 편리성, 심리적 안락감을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보통이다-4점, 매우 그렇다-7점). 환자복에 대한 불만족 경험 및 개선 요구사항은 소재, 디자인(형태, 색상, 문양 등), 편

의성(갈아입기 등), 사이즈, 청결 및 관리 상태, 기타로 나누어진 항목에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문항을 작성하였다. 프리미엄 환자복 채택 의향은 '만약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마음에 드는 환자복을 선택·착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의향'을 '매우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 하나로 응답하게 하였다.

의료보조용품 사용 경험 및 불편사항을 측정하기 위해, 의료보조용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용품 20종 및 기타 항목을 보기로 제시한 후 사용해 본 모든 용품을 표시하고 의료보조용품들의 사용 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을 제시된 보기에서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보기는 사이즈가 잘 맞지 않는다, 세탁하기 어렵다, 촉감이 나쁘다, 사용법이 불편하다,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가격이 비싸다, 기타로 주어졌다. 의료보조용품의 숫자가 많았으므로 문항수를 고려하여 용품 유형별 불편사항은 독립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다.

인구통계적 특성은 성별, 연령대, 의복 사이즈, 신장, 체중, 거주 지역으로 조사하였다. 성별은 남녀로, 연령대는 10세 구간으로, 의복 사이즈는 특대, 대, 중, 소, 특소의 5단계로, 신장은 5cm 구간으로, 체중은 10kg 구간으로, 그리고 거주 지역은 광역 권역 단위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09년 4월 6일부터 5월 27일에 걸쳐 전국에서 최근 10년 이내 입원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에 동의한 입원 경험자들에게 소정의 사례품과 함께 질문지를 배부한 후 응답자가 직접 답을 기입한 뒤 질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응답에 오류가 있거나 불완전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총 513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회수된 질문지는 코딩 후 SPSSWIN 10.1.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및 카이제곱분석, 이원분산분석, 다변량분산분석을 적용하였다.

4. 응답자 특성

응답자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은 남자가 218명(42.5%), 여자가 295명(57.5%)으로 여자가 더 많았다. 연령은 남녀 공히 20대가 50% 및 34.2%

<표 1> 응답자 특성

(N=513)

변 수		빈 도 (%)				전 체 (N=513)
		남 (n=218)		여 (n=295)		
		20대 이하 (n=115)	30대 이상 (n=103)	20대 이하 (n=105)	30대 이상 (n=190)	
연 령	만 19세 이하	6 (2.8)		4 (1.4)		10 (1.9)
	만 20~29세	109 (50.0)		101 (34.2)		210 (40.9)
	만 30~39세		28 (12.8)		79 (26.8)	107 (20.9)
	만 40~49세		23 (10.6)		60 (20.3)	83 (16.2)
	만 50~59세		29 (13.3)		38 (12.9)	67 (13.1)
	만 60~69세		17 (7.8)		6 (2.0)	23 (4.5)
	만 70~79세		5 (2.3)		6 (2.0)	11 (2.1)
만 80세 이상		1 (0.5)		1 (0.3)	2 (0.4)	
의복 사이즈	특 대	5 (4.3)	3 (2.9)	1 (1.0)	6 (3.2)	15 (2.9)
	대	39 (33.9)	42 (40.8)	5 (4.8)	25 (13.2)	111 (21.6)
	중	63 (54.8)	46 (44.7)	44 (41.9)	109 (57.4)	262 (51.1)
	소	8 (7.0)	12 (11.7)	49 (46.7)	46 (24.2)	115 (22.4)
	특 소	0	0	6 (5.7)	4 (2.1)	10 (1.9)
신 장 (cm)	155cm 미만	0	2 (1.9)	5 (4.8)	24 (12.6)	31 (6.0)
	155cm 이상 160cm 미만	1 (0.9)	1 (1.0)	27 (25.7)	73 (38.4)	102 (19.9)
	160cm 이상 165cm 미만	3 (2.6)	15 (14.6)	49 (46.7)	69 (36.3)	136 (26.5)
	165cm 이상 170cm 미만	8 (7.0)	29 (28.2)	16 (15.2)	18 (9.5)	71 (13.8)
	170cm 이상 175cm 미만	38 (33.0)	38 (36.9)	8 (7.6)	6 (3.2)	90 (17.5)
	175cm 이상 180cm 미만	41 (35.7)	16 (15.5)	0	0	57 (11.1)
	180cm 이상	24 (20.9)	2 (1.9)	0	0	26 (5.1)
체 중 (kg)	50kg 미만	0	1 (1.0)	54 (51.4)	37 (19.5)	92 (17.9)
	50kg 이상 60kg 미만	12 (10.4)	19 (18.4)	45 (42.9)	115 (60.5)	191 (37.2)
	60kg 이상 70kg 미만	52 (45.2)	43 (41.7)	6 (5.7)	29 (15.3)	130 (25.3)
	70kg 이상 80kg 미만	35 (30.4)	25 (24.3)	0	5 (2.6)	65 (12.7)
	80kg 이상 90kg 미만	13 (11.3)	14 (13.6)	0	0	27 (5.3)
	90kg 이상 100kg 미만	3 (2.6)	1 (1.0)	0	2 (1.1)	6 (1.2)
	100kg 이상	0	0	0	2 (1.1)	2 (0.4)
거주 지역	서 울	26 (27.2)	28 (27.2)	47 (44.8)	52 (27.4)	153 (29.8)
	인천·경기	23 (20.0)	36 (35.0)	34 (32.4)	82 (43.2)	175 (34.1)
	대전·충청	9 (7.8)	6 (5.8)	7 (6.7)	24 (12.6)	46 (9.0)
	전 북	0	0	1 (1.0)	1 (0.5)	2 (0.4)
	광주·전남	3 (2.6)	0	4 (3.8)	1 (0.5)	8 (1.6)
	대구·경북	51 (44.3)	29 (28.2)	9 (8.6)	24 (12.6)	113 (22.0)
	부산·울산·경남	2 (1.7)	4 (3.9)	3 (2.9)	6 (3.2)	15 (2.9)
	강 원	1 (0.9)	0	0	0	1 (0.2)

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30대(26.8%)와 40대(20.3%)의 참가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20대 이하와 30대 이상으로 연령 집단을 구분하였다.

의복 사이즈에 있어 남자는 20대 이하에서 중(54.8%)과 대(33.9%), 30대 이상에서 중(44.7%)과 대(40.8%)가 각각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여자는 20대 이하에서 소(46.7%)와 중(41.9%)이 비슷하게 많았으며 30대 이상에서는 중(57.4%)이 과반수인 가운데 소(24.2%)와 더불어 대(13.2%)도 상당수 나타났다. 30대 이상 여자의 경우 착용 의복 사이즈의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20대 이하 남자 집단의 신장 출현율이 가장 높은 구간은 175cm 이상 180cm 미만 구간이었으며(35.7%) 다음이 170cm 이상 175cm 미만(33.0%), 180cm 이상(20.9%) 구간이었다. 30대 이상 남자 집단은 170cm 이상 175cm 미만 구간이 가장 많았고(36.9%) 다음이 165cm 이상 170cm 미만(28.2%), 175cm 이상 180cm 미만(15.5%), 160cm 이상 165cm 미만(14.6%) 순이었다. 카이제곱분석 결과 20대 이하 남자가 30대 이상 남자보다 유의하게 키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50.993, p=.000$). 여자의 경우도 20대 이하 집단의

키가 더 크게 나타났다($\chi^2=14.079, p=.007$). 즉 20대 이하 집단은 160cm 이상 165cm 미만(46.7%)에 가장 응답율이 높았고, 다음이 155cm 이상 160cm 미만(25.7%)과 165cm 이상 170cm 미만(15.2%)이었던 반면 30대 이상 집단에서는 155cm 이상 160cm 미만(38.4%), 160cm 이상 165cm 미만(36.3%), 155cm 미만(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중의 경우 남자는 연령층별 차이가 없었으나($\chi^2=5.493, p=.359$) 여자에서는 연령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36.450, p=.000$). 남자는 60kg 이상 70kg 미만 및 70kg 이상 80kg 미만이 20대 이하의 경우 75.6%, 30대 이상의 경우 66.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여자의 경우 20대 이하는 50kg 미만의 체중이 과반수였고(51.4%), 30대 이상은 50kg 이상 60kg 미만이 60%를 초과하였다.

비확률적 표본추출방법을 따랐으므로, 거주 지역의 분포에는 편차가 있었다. 20대 남자는 대구·경북이 가장 많았고(44.3%) 20대 여자는 서울이 가장 많았으며(44.8%), 30대 이상 남자와 여자는 인천·경기가 가장 많았다(35.0%와 43.2%). 전체적으로는 인천·경기(34.1%), 서울(29.8%), 대구·경북(22.0%) 지역의 비중이 높았다.

III. 연구결과

1. 병·의원 입원 경험

최근 10년간 한 번이라도 입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므로 최근 10년간의 입원 횟수 최소값은 1회이며, 최대값은 21회로 30대 이상 남자 집단에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1회의 입원 경험을 가진 응답자가 57.3%로 과반수였으며, 2회

25.1%, 3회 8.4%, 4회 3.7% 순으로 나타났다. 30대 이상 남자 집단 중에 다수의 입원 경험을 가진 응답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이원분산분석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최근 10년간 입원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연령과 성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3>은 남자 집단과 30대 이상 집단에서 입원 횟수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건강보험 급여 자료로 성별 및 연령대별 평균 수진 횟수를 비교해 본 최은숙 외(2008)에 따르면 평균 수진 횟수는 15세 미만과 80세 이상의 연령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더 높았으나 입원의 경우는 25~34세와 80~84세 구간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평균 수진 횟수가 더 낮았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남자 집단의 입원 횟수가 더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최은숙 외(2008)에서는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입원 횟수가 증가함을 보고하였으므로, 이 또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비록 유병율과 수진율에 있어서는 여성이 높지만 입원은 남성이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며, 나이가 들에 따라서 입원의 횟수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입원한 병·의원의 소재지, 유형 및 진료과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는 <표 4>와 같다. 입원 병·의원의 소재지 분포는 응답자 거주지와 유사하게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 순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은 거주자(29.8%)에 비해 병·의원 방문자(33.6%)가 많고, 인천·경기는 반대로 거주자(34.1%) 비율이 병·의원 방문자(26.3%)보다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환자들이 인근 대도시 병원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30대 이상 집단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지역 간 병·의원 교차방문에 대한 조사는 향후 지역별 표본수 및 방문 시기를 통제하여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 최근 10년간 입원 횟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92.336	3	30.779	8.041	.000
절편	1870.698	1	1870.698	488.732	.000
성별	55.110	1	55.110	14.398	.000
연령	38.661	1	38.661	10.100	.002
성별 * 연령	10.361	1	10.361	2.707	.101
오차	1948.276	509	3.828		
합계	3955.000	513			
수정 합계	2040.612	512			

<표 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최근 10년간 입원 횟수

연령 집단	성 별	평 균 (표준편차)		
		남	여	전 체
20대 이하		1.88	1.50	1.70
30대 이상		2.74	1.77	2.11
전 체		2.28	1.67	1.93

<표 4> 입원 병·의원의 소재지, 유형 및 진료과(중복 응답)

구 분		빈 도 (%*)				전 체
		남		여		
		20대 이하	30대 이상	20대 이하	30대 이상	
소재지	서울	38 (24.4)	59 (38.8)	55 (43.0)	103 (39.2)	225 (33.6)
	인천·경기	29 (18.6)	37 (24.3)	29 (22.7)	81 (30.8)	176 (26.3)
	대전·충청	13 (8.3)	13 (8.6)	8 (6.3)	32 (12.2)	66 (9.9)
	전북	1 (0.6)	0	1 (0.8)	3 (1.1)	5 (0.7)
	광주·전남	9 (5.8)	4 (2.6)	3 (2.3)	3 (1.1)	19 (2.8)
	대구·경북	56 (35.9)	32 (21.1)	14 (10.9)	29 (11.0)	131 (19.6)
	부산·울산·경남	5 (3.2)	7 (4.6)	15 (11.7)	8 (3.0)	35 (5.2)
	강원	1 (0.6)	0	2 (1.6)	1 (0.4)	4 (0.6)
	제주	3 (1.9)	0	0	0	3 (0.4)
	기타	1 (0.6)	0	1 (0.8)	3 (1.1)	5 (0.7)
합 계		156 (100)	152 (100)	128 (100)	263 (100)	669 (100)
유 형	대학병원	61 (39.1)	68 (47.6)	63 (50.0)	95 (38.0)	287 (42.5)
	일반종합병원	46 (29.5)	52 (36.4)	39 (31.0)	73 (29.2)	210 (31.1)
	전문병원	16 (10.3)	12 (8.4)	11 (8.7)	33 (13.2)	72 (10.7)
	의원(개인병원)	29 (18.6)	10 (7.0)	13 (10.3)	49 (19.6)	101 (15.0)
	기타	4 (2.6)	1 (0.7)	0	0	5 (0.7)
합 계		156 (100)	143 (100)	126 (100)	250 (100)	675 (100)
진료과	내과	28 (17.9)	40 (28.6)	41 (33.3)	44 (17.1)	153 (22.6)
	비뇨기과	1 (0.6)	7 (5.0)	0	6 (2.3)	14 (2.1)
	산부인과	0	0	9 (7.3)	110 (42.6)	119 (17.6)
	성형외과	2 (1.3)	0	5 (4.1)	1 (0.4)	8 (1.2)
	소아청소년과	3 (1.9)	0	2 (1.6)	2 (0.8)	7 (1.0)
	신경과	2 (1.3)	2 (1.4)	3 (2.4)	1 (0.4)	8 (1.2)
	신경외과	7 (4.5)	9 (6.4)	6 (4.9)	9 (3.5)	31 (4.6)
	신경정신과	0	3 (2.1)	0	1 (0.4)	4 (0.6)
	안과	8 (5.1)	3 (2.1)	2 (1.6)	3 (1.2)	16 (2.4)
	외과	15 (9.6)	22 (15.7)	12 (9.8)	22 (8.5)	71 (10.5)
	이비인후과	14 (9.0)	5 (3.6)	7 (5.7)	3 (1.2)	29 (4.3)
	재활의학과	1 (0.6)	7 (5.0)	2 (1.6)	2 (0.8)	12 (1.8)
	정신과	0	0	1 (0.8)	0	1 (0.1)
	정형외과	65 (41.7)	29 (20.7)	25 (20.3)	39 (15.1)	158 (23.3)
	통증의학과	1 (0.6)	1 (0.7)	0	1 (0.4)	3 (0.4)
	피부과	4 (2.6)	3 (2.1)	1 (0.8)	2 (0.8)	10 (1.5)
	흉부외과	2 (1.3)	7 (5.0)	2 (1.6)	6 (2.3)	17 (2.5)
	영상의학과	1 (0.6)	1 (0.7)	0	0	2 (0.3)
	기타	2 (1.3)	1 (0.7)	5 (4.1)	6 (2.3)	14 (2.1)
합 계		156 (100)	140 (100)	123 (100)	258 (100)	677 (100)

*총 응답수 중 백분율

입원하였던 병·의원 유형은 대학병원이 가장 많았고 (42.5%), 다음이 일반종합병원(31.1%), 의원(15.0%) 순

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정형외과에 입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23.3%), 다음이 내과(22.6%),

산부인과(17.6%), 외과(10.5%) 순이었다. 30대 이상 여자들은 산부인과 입원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20대 이하 남자 집단은 정형외과 입원율이 높았으며, 이비인후과나 안과 입원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비뇨기과와 흉부외과는 30대 이상 연령에서 입원하는 경향을 보였고, 성형외과에는 20대 이하 여자의 입원 사례가 비교적 많았다.

<표 5>에서는 입원 병·의원 유형에 따른 진료과를 교차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대학병원과 일반종합병원은 상대적으로 내과 입원 환자 비중이 높고 전문병원은 산부인과, 의원은 산부인과와 외과, 정형외과로의 입원 환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입원했던 병·의원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매우 만족 33명(6.4%), 대체로 만족 220명(42.9%), 보통 178명(34.7%), 비교적 불만족 73명(14.2%), 매우 불만족 9명(1.8%)으로 나타났다.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에 응답한 사례가 49.3%였던 반면 매우 불만족과 비교적 불만족의 경우는 16.0%로 환자들은 전반적으로 병·의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매우 만족에 5점, 대체로 만족에 4점, 보통에 3점, 비교적 불만족에 2점, 매우 불만족에 1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만족도 점수를 구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성별과 연령 집단 간 만족도 차이를 이원분산분석으로 살펴보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1.510, p=0.211$).

2. 환자복에 대한 평가

환자복에 대해 12가지 속성의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평가하게 한 결과 사이즈, 소재의 촉감, 소재의 색상과 문양, 심리적 편안함, 전반적 만족도는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환자복의 평가에 성별과 연령층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3가지 만족도 평가 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결과에서처럼 사이즈, 화장실 사용 편리성, 치료·처치의 편리성에 대한 평가가 독립변수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표 6>을 병행하여 살펴보면, 사이즈는 성별에 따라 평가가 유의하게 달랐는데 남성들은 비교적 나에게 맞는 사이즈의 환자복이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이즈 문제는 여성 환자들에게서 보다 심각하게 지각되고 있었다. 이는 <표 1>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의 경우 20대 이하는 30대 이상보다 키는 더 크고 체중은 더 적게 나가는 등 여성 내에서의 체형 차이가 남성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화장실 사용 편리성에 대한 반응은 연령층에 따라 달랐다. 20대 이하보다 30대 이상 집단에서 유의하게 화장실 사용 편리성이 떨어진다고 지각함을

<표 5> 입원 병·의원 유형에 따른 진료과(중복 응답)

진료과	빈도				
	대학병원	일반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기타
내과*	74	57	6	12	3
비뇨기과	8	2	2	2	0
산부인과*	45	21	22	26	0
성형외과	4	1	1	2	0
소아청소년과	4	3	0	0	0
신경과	4	1	2	1	0
신경외과	13	16	1	1	0
신경정신과*	0	3	0	0	0
안과*	8	4	2	1	0
외과*	28	23	4	11	1
이비인후과	15	6	3	5	0
재활의학과	3	6	2	1	0
정신과	0	0	1	0	0
정형외과	55	49	19	34	1
통증의학과	0	1	2	0	0
피부과*	1	5	1	2	0
흉부외과*	10	4	2	0	0
영상의학과	1	0	0	1	0
기타	7	4	2	1	0

*교차표상의 결측치로 인해 전체 진료과 응답수와 차이가 있음

<표 6> 성별과 연령층에 따른 환자복의 속성별 평가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전 체 (N=513)*
	남 (n=218)		여 (n=295)		
	20대 이하 (n=115)*	30대 이상 (n=103)*	20대 이하 (n=105)*	30대 이상 (n=190)*	
나에게 맞는 사이즈의 환자복이 있었다	4.29 (1.731)	4.23 (1.655)	3.39 (1.543)	3.58 (1.798)	3.83 (1.741)
환자복은 청결하였다	4.51 (1.470)	4.70 (1.300)	4.43 (1.329)	4.59 (1.428)	4.56 (1.392)
환자복은 소재의 촉감이 좋았다	4.08 (1.515)	3.99 (1.461)	3.89 (1.272)	3.85 (1.561)	3.94 (1.473)
환자복 소재의 색상과 문양이 마음에 들었다	3.65 (1.511)	3.82 (1.561)	3.46 (1.285)	3.58 (1.513)	3.62 (1.479)
환자복의 형태가 적합하였다	4.14 (1.411)	4.14 (1.369)	4.00 (1.241)	3.95 (1.339)	4.04 (1.341)
환자복을 입고 벗기 편리하였다	4.69 (1.537)	4.40 (1.328)	4.56 (1.345)	4.31 (1.429)	4.47 (1.422)
환자복을 착용하고 움직이기 편리하였다	4.75 (1.409)	4.48 (1.324)	4.89 (1.240)	4.55 (1.377)	4.66 (1.351)
환자복을 입고 화장실 사용이 편리하였다	4.63 (1.508)	4.10 (1.468)	4.34 (1.545)	4.08 (1.475)	4.26 (1.507)
환자복은 봉제 상태가 좋았다	4.36 (1.297)	4.33 (1.405)	4.43 (1.143)	4.29 (1.311)	4.34 (1.291)
환자복은 솔기가 배기지 않고 편안하였다	4.41 (1.229)	4.25 (1.392)	4.58 (1.267)	4.22 (1.466)	4.34 (1.363)
환자복을 입고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치료·처치를 받기 편리하였다	4.75 (1.384)	4.52 (1.209)	4.58 (1.395)	4.16 (1.427)	4.45 (1.385)
환자복을 입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였다	3.62 (1.597)	3.68 (1.476)	3.37 (1.534)	3.63 (1.506)	3.58 (1.527)
전반적으로 환자복에 만족하였다	4.06 (1.396)	3.99 (1.483)	4.00 (1.296)	3.86 (1.429)	3.96 (1.404)

*총 응답자수이며, 문항별로 결측 자료수가 다름

<표 7> 환자복의 속성별 평가에 대한 다변량분석 결과

변 수	F (유의확률)			
	모 형	성 별	연령층	성별 * 연령층
나에게 맞는 사이즈의 환자복이 있었다	8.027 (.000)	23.832 (.000)	.156 (.693)	.637 (.425)
환자복은 청결하였다	.716 (.543)	.571 (.450)	1.845 (.175)	.013 (.908)
환자복은 소재의 촉감이 좋았다	.645 (.586)	1.459 (.228)	.243 (.623)	.031 (.860)
환자복 소재의 색상과 문양이 마음에 들었다	1.097 (.350)	2.557 (.110)	1.152 (.284)	.025 (.874)
환자복의 형태가 적합하였다	.651 (.583)	1.687 (.195)	.022 (.882)	.045 (.832)
환자복을 입고 벗기 편리하였다	1.910 (.127)	.711 (.400)	4.275 (.039)	.012 (.911)
환자복을 착용하고 움직이기 편리하였다	2.088 (.101)	.668 (.414)	5.822 (.016)	.072 (.789)
환자복을 입고 화장실 사용이 편리하였다	3.518 (.015)	1.266 (.261)	7.815 (.005)	.909 (.341)
환자복은 봉제 상태가 좋았다	.256 (.857)	.007 (.933)	.501 (.479)	.184 (.668)
환자복은 솔기가 배기지 않고 편안하였다	1.785 (.149)	.339 (.561)	4.272 (.039)	.632 (.427)
환자복을 입고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치료·처치를 받기 편리하였다	4.680 (.003)	4.015 (.046)	6.453 (.011)	.553 (.458)
환자복을 입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였다	.878 (.453)	1.142 (.286)	1.280 (.258)	.484 (.487)
전반적으로 환자복에 만족하였다	.547 (.651)	.548 (.460)	.670 (.413)	.066 (.798)

알 수 있다. 치료·처치의 편리성은 성별과 연령층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연령층에서는 20대 이하 집단이 더 치료·처치의 편리성을 높게 응답하였다. 모형 자체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착탈의 편리성, 동작 편리성, 솔기의 편

안함에 대한 평가에서도 연령층의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환자복의 구성과 관련한 속성에서는 고연령층의 평가가 저연령층의 평가보다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환자복에 대한 불만족 경험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

한 자유기술응답 결과는 집단 구분 없이 <표 8>에 제시하였다. 사이즈 194건, 디자인 137건, 소재 118건, 청결 및 관리 상태 106건, 편의성 71건, 기타 16건으로 총 642건의 불만족 경험 및 개선 요구사항이 언급

되었다. 되도록 구체적인 의견을 그대로 파악하기 위해 유사한 유목이라 하더라도 표현이 다른 경우 기술 내용들을 따로 정리하였다. 소재에 있어서는 거칠고 뻣뻣한 소재를 부드러운

<표 8> 불만족 경험 및 및 개선 요구사항(중복 응답)

구분	응답 내용
소재 (118)	소재가 거칠고 뻣뻣하므로 부드러운 소재로 (58) 면(100%) 소재로 (26) 계절별로 차이(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9)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6)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소재로 (4) 얇은 소재로 (4) 땀 흡수가 잘 되는 소재로 (3) 때가 안타게 (2) 기타(오가닉 면, 항균 소재, 쿨맥스, 실켓 가공, 좋은 소재, 다양하게)
디자인 (137)	밝은 색상 및 무늬로 생기를 찾을 수 있게 (34) 획일적이고 전형적인 디자인에서 탈피 (15) 병원 로고가 안 들어가게 (14) 환자 상태별로 구분하여 다양할 필요 (14) 너무 아픈 사람 느낌이 나지 않게 (11) 특정 색 요구 (7, 하늘색 2, 연두색 2, 분홍색 2, 소라색 1) 특정 형태 요구 (5, 티셔츠 2, 트레이닝복 1, 캐주얼의류 2) 환부별로, 혹은 수액 맞는 팔에 단추로 여밈 처리 (4) 너무 단순함 (5) 세련되게/패션성 고려 (4) 흰색과 파란색에서 탈피 (4) 꽃무늬로 (4) 촌스러움 (2) 앞이 너무 파임 (2)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게 단추 간격 조절 (2) 주머니를 양쪽에 (4) 주머니를 더 크게 (1) 무늬를 작게 (1) 무늬 없게 (1) 첫 번째 단추를 낮게 (1) 앞 목선을 브이넥 대신 등글게 (1) 거동이 가능한 환자가 활동할 때 편리한 디자인도 고려 (1)
편의성 (71)	허리끈 바지는 입고 벗기 불편함 (14) 단추가 많아 채우기 불편 (13) 주사 바늘 꽂고 입고 벗기 불편 (9) 갈아입기 불편함 (7) 바지허리를 고무줄로 (7) 허리끈 바지의 경우 흘러내려 불편함 (4) 허리끈 조절이 불편하여 갑갑함 (2) 깁스 한 채 화장실 사용하기 불편함 (2) 상의 여밈을 벨크로로 (2) 상의 여밈을 지퍼로 (2) 상의 여밈을 단추로 (1) 상의 여밈을 끈으로(1) 상의 여밈을 스냅으로 (1) 허리끈을 누군가 당기면 풀리게 되어 있음 (1) 바지 허리끈은 세탁 후 끼어서 불편 (1) 위아래 한 벌로 갈아입기 편하게 (1) 잘 흘러내림 (1) 허리를 들어 올리지 않고도 누워서 갈아입을 수 있도록 (1) 양팔을 끼우기 불편함 (1)

<표 8> 계 속

구 분	응 답 내 용
<p>사이즈 (194)</p>	<p>너무 큼 (91) 사이즈 제한/다양하게 (68) 폭이 너무 험렁함 (15) 조금 작음/큰 사이즈 필요 (8) 바지 길이가 길 (6) 길이 짧음/길게 (4) 크기가 고르지 않음 (2)</p>
<p>청결 및 관리 상태 (106)</p>	<p>낡고 헌 옷이 많음 (20) 원할 때/자주 갈아입을 수 있도록 (14) 불결한 느낌 (13) 때/얼룩으로 지저분함 (10) 살균 소독, 위생관리 철저하게 (10) 깨끗하지 않음 (9) 색이 바랬음 (5) 해지고 찢어짐 (5) 약품 냄새가 남 (5) 구김이 많음 (4) 보관 상태 불결 (4) 단추가 떨어져 없는 옷이 있음 (2) 개인용/새옷 지급 (2) 방향 필요 (1) 세탁처 불분명 (1) 사이즈별 구분하여 관리 필요 (1)</p>
<p>기 타 (16)</p>	<p>남녀 환자복 구분 (4) 계절 구분 필요 (3) 연령에 따른 환자복 구분 (2) 겨울에 보온 잘 안되어 추움 (2) 장기 입원일 경우 개인용 구매 가능하도록 (1) 산부인과 모유 수유복 별도 비치 (1) 환부에 따라 상의나 하의 하나만 입을 수 있도록 (1) 대체로 내 옷을 그냥 입고 싶음 (1) 여분 환자복을 세탁물로 오인하여 처리하는 경우 많음 (1)</p>

소재로 대체해 주기를 희망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58건). 면 소재가 적용되지 않는 환자복을 착용했던 경우 면 소재를 요구하고 있었으며(26건), 겨울용과 여름용의 소재를 달리하여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착용하기를 바랐다(9건). 기타 신축성 있는 소재, 땀 흡수가 잘 되는 소재 등을 언급하였으며, 오가닉 면, 항균 소재, 쿨맥스 등 천연 소재나 기능성 소재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디자인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요청은 밝은 색상이나 문양을 사용하여 아픈 사람이 생기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34건).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병원 로고를 삭제하고(14건), 흰색과 파란색 일색에서 탈피하여 하늘색, 연두색, 분홍색 등의 색상을 적용하며 꽃무늬를 사용해 주도록 희망하였다. 그리고 형태에 있어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다양한 환자복을 디자인 해주고, 환부 혹은 수액을 맞는 팔에 여밈을 두어 착탈의가 편리하도록 요구하였다. 척추 수술

시 상의는 거꾸로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실용적인 주머니를 달고,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디자인에 신경써 주기를 희망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편의성에 대해서는 주로 하의 허리와 상의 여밈에 대한 불만족 경험이 많이 있었다. 입고 벗을 때의 불편함이나 착용 상태에서의 흘러내림 때문에 허리끈 바지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았고(14건) 그래서 일부는 구체적으로 고무줄 바지로의 교체를 희망하고 있었다. 상의의 단추는 거동이 불편할 경우 단추 채우기가 힘들다고 하였으며(13건), 일부 응답에서는 벨크로, 지퍼, 단추, 끈, 스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사이즈에 대한 불만은 대다수가 너무 크거나(91건) 험렁한 옷을 준다는 것이었다(15건). 소수 의견으로는 옷이 너무 작았다는 사례도 나타났다. 따라서 옷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프리사이즈나 제한된 사이즈

로 환자들의 착용감을 저해하지 말고 다양한 사이즈를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청결 및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낡고 험 옷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제공한다는 불만이 많았으며(20건) 이와 연관된 것으로 때/얼룩이 지지 않은 옷, 색이 바랜 옷, 찢어지거나 해진 옷, 구김이 많은 옷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개선 요구사항은 환자가 필요할 때, 자주 새 환자복으로 교체해달라는 것이었다(14건). 어떤 병·의원의 경우 환자복 갈아입는 요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한편 응답자들은 청결 상태와 무관하게 아픈 사람들이 공용으로 입는 옷이라는 사실 자체에서 불편한 느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서는 성별 및 연령에 따른 환자복 구분 및 계절별 구분을 희망하는 언급이 있었다. 또한 자신의 옷을 그대로 입거나 장기 입원일 경우 개인용 환자복을 구매하게 해달라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약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마음에 드는 환자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의향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카이제곱분석 결과 성별($\chi^2=0.531, p=.912$) 및 연령($\chi^2=3.506, p=.320$)에 따른 의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6.1%는 매우 의향이 있다고 하였고, 29.2%는 약간 있다고 하여 약 35% 정도의 응답자들은 프리미엄 환자복을 채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자복에 대한 불만족 경험이나 개선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으므로 이렇게 나타난 수치는 실제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 의료보조용품 사용 경험 및 불편사항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사용해 본 의료보조용품을 모두 선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냉찜질용품의 사용

경험이 39.6%로 가장 많았고, 탄력/압박 붕대 31.0%, 가슴/허리 보호대 21.6%, 각종 테이핑용품 19.7%, 환자용 신발 17.9%, 손/손목 보호대 17.0%, 발/발목 보호대 13.5%, 건강베개 13.1%, 압박 스타킹 11.9%, 무릎 보호대 11.7%, 팔걸이 11.1%의 순서대로 사용 경험이 많았다. 이들 11개 용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 이상이 사용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탈장 보호대(1.2%), 공기압 의복(1.4%), 압력 의복(2.3%)은 상대적으로 사용경험이 낮은 용품에 속했다. 기타 응답으로는 복대, 얼굴(안면)보호대, 깁스, 목발, 지압기, 마사지기계, 휠체어, 좌욕기의 응답이 있었다.

성별과 연령층에 따른 집단별로 의료보조용품 사용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05$ 수준에서는 어깨 보호대($\chi^2=21.053, p=.000$), 가슴/허리 보호대($\chi^2=36.758, p=.000$), 허벅지/정강이 보호대($\chi^2=9.134, p=.028$), 발/발목 보호대($\chi^2=12.257, p=.007$), 손 및 손가락 보조대($\chi^2=11.004, p=.012$), 탄력/압박 붕대($\chi^2=11.593, p=.009$), 냉찜질용품($\chi^2=8.458, p=.037$), 각종 테이핑용품($\chi^2=11.844, p=.008$), 건강베개($\chi^2=9.190, p=.027$)의 아홉 개에서, $p<.10$ 수준에서는 팔꿈치 보호대($\chi^2=6.667, p=.083$), 손/손목 보호대($\chi^2=6.748, p=.080$), 환자용 신발($\chi^2=7.335, p=.062$), 압박 양말($\chi^2=7.446, p=.059$)의 네 개 용품에서 집단별로 유의한 사용 경험 차이가 나타났다. 20대 이하 남자 집단에서는 허벅지/정강이 보호대, 발/발목 보호대, 손/손목 보호대, 손 및 손가락 보조대, 환자용 신발, 압박 양말, 각종 테이핑용품처럼 주로 부상으로 인한 골절 등의 사유로 사용하는 용품들이 많이 선택되었다. 이는 이들의 정형외과 입원을 이 높았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30대 이상 남자 집단은 어깨 보호대와 가슴/허리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및 건강베개의 상대적 사용 경험율이 높았으므로 어깨, 허리와 관련된 통증 문제 때문에 의료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20대 이하 여자

<표 9> 프리미엄 환자복 채택 의향

구 분	빈 도 (%)				전 체 (N=511)
	남 (n=217)		여 (n=294)		
	20대 이하 (n=115)	30대 이상 (n=102)	20대 이하 (n=105)	30대 이상 (n=189)	
매우 있다	7 (6.1)	7 (6.9)	4 (3.8)	13 (6.9)	31 (6.1)
약간 있다	29 (25.2)	32 (31.4)	39 (37.1)	49 (25.9)	149 (29.2)
별로 없다	44 (38.3)	46 (45.1)	41 (39.0)	8 (44.4)	215 (42.1)
전혀 없다	35 (30.4)	17 (16.7)	21 (20.0)	43 (22.8)	116 (22.6)

<표 10> 의료보조용품 사용 경험(중복 응답)

구 분	빈 도 (%*)				전 체
	남		여		
	20대 이하	30대 이상	20대 이하	30대 이상	
목 보호대	12 (10.4)	12 (11.7)	6 (5.7)	13 (6.8)	43 (8.4)
어깨 보호대	10 (8.7)	14 (13.6)	1 (1.0)	5 (2.6)	30 (5.8)
가슴/허리 보호대	8 (7.0)	30 (29.1)	12 (11.4)	61 (32.1)	111 (21.6)
팔꿈치 보호대	7 (6.1)	8 (7.8)	2 (1.9)	5 (2.6)	22 (4.3)
탈장 보호대	1 (0.9)	3 (2.9)	0	2 (1.1)	6 (1.2)
무릎 보호대	18 (15.7)	12 (11.7)	9 (8.6)	21 (11.1)	60 (11.7)
허벅지/정강이 보호대	11 (9.6)	6 (5.8)	9 (8.6)	4 (2.1)	30 (5.8)
발/발목 보호대	26 (22.6)	9 (8.7)	15 (14.3)	19 (10.0)	69 (13.5)
손/손목 보호대	28 (24.3)	12 (11.7)	17 (16.2)	30 (15.8)	87 (17.0)
손 및 손가락 보조대	17 (14.8)	4 (3.9)	14 (13.3)	13 (6.8)	48 (9.4)
팔걸이	17 (14.8)	9 (8.7)	14 (13.3)	17 (8.9)	57 (11.1)
환자용 신발	29 (25.2)	12 (11.7)	20 (19.0)	31 (16.3)	92 (17.9)
압박 스타킹	14 (12.2)	17 (16.5)	10 (9.5)	20 (10.5)	61 (11.9)
압박 양말	9 (7.8)	4 (3.9)	1 (1.0)	6 (3.2)	20 (3.9)
압력 의복	2 (1.7)	1 (1.0)	5 (4.8)	4 (2.1)	12 (2.3)
공기압 의복	0	2 (1.9)	0	5 (2.6)	7 (1.4)
탄력/압박 붕대	41 (35.7)	25 (24.3)	44 (41.9)	49 (25.8)	159 (31.0)
냉찜질용품	42 (36.5)	30 (29.1)	44 (41.9)	87 (45.8)	203 (39.6)
각종 테이핑용품	29 (25.2)	18 (17.5)	29 (27.6)	25 (13.2)	101 (19.7)
건강배개	7 (6.1)	18 (17.5)	19 (18.1)	23 (12.1)	67 (13.1)
가 타	4 (3.5)	0	3 (2.9)	6 (3.2)	13 (2.5)

*전체 응답자 중 선택 비율

집단에서는 탄력/압박 붕대와 각종 테이핑용품의 사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아 같은 또래의 남자들보다는 경미한 부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대 이상 여성들은 다른 집단들보다 가슴/허리 보호대와 냉찜질용품의 사용 경험률이 높았다. 산후통 및 신경통 등의 이유에서 사용하는 용품으로 추측된다.

<표 11>은 의료보조용품 사용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이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세탁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고(31.6%), 다음이 촉감이 나쁜 점(25.7%), 가격이 비싼 점(21.1%), 사이즈가 잘 맞지 않는 점(19.1%),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점(15.6%), 사용법이 불편한 점(12.9%)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응답으로는 디자인이 초라하다, 재질이 나쁘다, 사이즈에 제한이 있다,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장기 착용시 통증이 느껴진다, 착용 후 활동이 불편하다, 답답하다, 잘 망가진다 등이 있었다.

세탁, 촉감, 피부 트러블, 디자인, 재질, 사이즈, 청결 상태 유지 등 많은 불편사항들에 대해 의류학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성별과 연령층에 따라 의료보조용품 사용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촉감이 나쁘다의 한 문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7.854$, $p=.049$). 20대 이하 남자 집단에서 이 불편함을 상대적으로 많이 호소하였는데, 이는 이 집단이 각종 보호대를 많이 착용했던 경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병·의원 입원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 및 연령층에 따라 병·의원에서의 의류 제품 사용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병·의

<표 11> 의료보조용품 사용 과정에서의 불편함(중복 응답)

구분	빈도(%)				전체 (N=513)
	남		여		
	20대 이하 (n=115)	30대 이상 (n=103)	20대 이하 (n=105)	30대 이상 (n=190)	
사이즈가 잘 맞지 않는다	20 (17.4)	19 (18.4)	16 (15.2)	43 (22.6)	98 (19.1)
세탁하기 어렵다	40 (34.8)	27 (26.2)	36 (34.3)	59 (31.1)	162 (31.6)
촉감이 나쁘다	38 (33.0)	17 (16.5)	28 (26.7)	49 (25.8)	132 (25.7)
사용법이 불편하다	16 (13.9)	17 (16.5)	12 (11.4)	21 (11.1)	66 (12.9)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19 (16.5)	17 (16.5)	14 (13.3)	30 (15.8)	80 (15.6)
가격이 비싸다	26 (22.6)	27 (26.2)	21 (20.0)	34 (17.9)	108 (21.1)
기타	4 (3.5)	4 (3.9)	7 (6.7)	3 (1.6)	18 (3.5)

*전체 응답자 중 선택 비율

원 환경에 대한 의류학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09년 4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국에서 최근 10년 이내 입원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최종 513부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국내 병·의원의 입원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하였다. 진료과별 입원은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외과 순이었는데 연령별 차이가 있어서 30대 이상 여자들은 산부인과 입원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20대 이하 남자 집단은 정형외과 입원율이 높았다.

환자복에 대한 평가 결과 사이즈, 소재의 촉감, 소재의 색상과 문양, 심리적 편안함, 전반적 만족도는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즈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불만족이 컸고, 30대 이상 남녀는 20대 이하 남녀보다 환자복의 구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환자복에 대한 불만족 경험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자유기술응답 결과, 소재에 있어서는 거칠고 뻣뻣한 소재를 부드러운 소재로 대체해 주기를 희망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밝은 색상이나 문양을 사용하여 생기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편의성에 대해서는 하의 허리와 상의 여밈에 대한 불만족 경험이 많이 있었다. 사이즈에 대한 불만의 대다수는 너무 크거나 헐렁한 옷을 준다는 것이었다. 청결 및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낡고 헌 옷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제공한다는 불만이 많았으며, 환자가 필요할 때 새 환자복으로 자주 교체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약간의 추가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프리미엄 환자복 채택 의향에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6.1%는 매우 의향이 있다고 하였고 28.2%는 약간 있다고 하여 약 35% 정도는 프리미엄 환자복 채택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의료보조용품 사용 경험은 냉찜질용품, 탄력/압박 붕대, 가슴/허리 보호대, 각종 테이핑용품, 환자용 신발, 손/손목 보호대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20대 이하 남자는 주로 허벅지/정강이 보호대, 발/발목 보호대, 손/손목 보호대, 손 및 손가락 보호대, 환자용 신발, 압박 양말, 각종 테이핑용품의 사용 경험이 많았다. 30대 이상 남자 집단은 어깨 보호대와 가슴/허리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및 건강베개의 상대적 사용 경험이 많았다. 20대 이하 여자는 탄력/압박 붕대와 각종 테이핑용품, 30대 이상 여자는 가슴/허리 보호대와 냉찜질용품의 사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의료보조용품 사용 과정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세탁하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촉감 문제, 가격 문제, 사이즈 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는 환자복 사이즈 체계의 측면이다. 환자복에 있어서 여성들의 사이즈 불만이 더 많았는데 특히 20대 이하 여성의 경우 30대 이상 여성보다 신장은 더 크면서 체중은 더 적은 경향을 보이며, 이들의 사이즈에 대한 불만족도도 더 높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더 다양한 체형상의 변이가 있으나 여성들이 남성보다 입원율이 낮으므로 일반병원에서는 여성용 사이즈 체계가 남성용보다 더 세밀하지 못한 실정이다. 환자복은 진료 및 서비스 등 병·의원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와중에도 순간순간 불만스러운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병·의원 측에서는 여성 환자복의 사이즈 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최근 일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환자복 디자인 개발 등 환자복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환자복을 개선하는 데 앞서 다양한 사이즈의 구비가 더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여성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는 진료과는 산부인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이며, 산부인과와 정형외과는 전문병원이나 의원으로의 입원이 많으므로 이들 병·의원에서 더욱 환자복 사이즈 체계화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병·의원 및 환자복 공급업체와 의복구성학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개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환자복 소재에 관한 것이다. 환자복 속성 중 소재 촉감도 불만족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거칠고 뻣뻣한 소재를 부드러운 것으로 교체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섬유소섬유계열인 면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일반 환자복에 대해서는 면/폴리에스터 혼방직물을 사용하여 뻣뻣한 느낌과 구김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세탁방법도 함께 연구되어 고온에서 삶지 않고도 멸균 및 얼룩 제거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프리미엄 환자복 채택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환자들을 위해 고급형 환자복을 일반 환자복과 별도로 제공한다면 라이오셀 같은 친환경 섬유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이오셀은 비교적 부드러우며 면과 같은 섬유소섬유계열의 섬유이고 편성 또는 직조 방법에 따라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소재로 제작이 가능하다. 섬유소섬유가 주성분이므로 땀 흡수도 잘 되며, 스팽크스 섬유를 5% 이내로 첨가하면 소재의 신축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항균 가공, 실켓 가공 등도 가능하다.

셋째는 환자복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환자복의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20대 이하에 비해 30대 이상에서 낮게 나타났다. 30대 이상 남녀는 착탈의, 동작, 화장실 사용, 치료·처치 및 술기의 배지에서 짧은 사람들이 보다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30대 이상은 진료과별 입원 빈도에서도 흉부외과의 입원이 상대적으로 높고 의료보조용품 사용 경험에서도 가슴/허리 보호대의 사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볼 때 20대 이하보다는 허리의 움직임이 불편한 상태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으리라 추측된다. 최근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는 바, 더 불편한 사람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더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환자복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젊은이들보다 나이는 층을 대상으로 환자복 착의평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텍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의료보조용품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선결 문제는 세탁 및 촉감의 문제이다. 의료용품 자체가 텍스타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품 구매와 함께 적합한 세탁 및 관리법을 지시해 줌으로써 청결함을 유지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나노섬유는 연일효과와 초발수성을 활용하여 쉽게 오염이 되지 않는 성질을 지니므로, 소재 자체의 방오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키토산/은 등을 이용한 항균 효과로 오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텍스타일 복합용품의 경우 신체 부위에 직접 닿거나 외부로 많이 노출되어 쉽게 더러워지는 부분을 탈착하여 세탁할 수 있도록 구성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의료보조용품에서도 환자들의 다양한 체형을 고려하여 사이즈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착용하여 치료의 보조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복보다도 더 세분화된 사이즈 체계가 꼭 필요하다. 또한 의료보조용품의 숫자가 매우 많고 다양한 신체 부위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의료보조용품 공급업체와 의류학자들의 공동 개발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진료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환자복과 의료보조용품 사용 경험을 조사하였고, 각 응답자에 대해서도 여러 입원 경험에 대해 복합적인 의견을 들었으므로 진료과별 특성을 반영한 제언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성별 및 연령층을 고려하여 입원 경험이 많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세분화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보다 심층적인 병·의원 의료 제품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순옥, 박정룡, 김명주, 이미경, 신경희. (2007). 병원급식 서비스에 대한 환자만족도와 요구도에 관한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40(3), 281-287.
- 공혜정. (2007). *중증 와상(臥床) 환자복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인, 고애란, 김지연, 한소원, 이지현, 원경미, 김하니. (2001). 세브란스 병원 환자복 디자인.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5, 107-123.
- 김정현. (2002). *기동부자유 장기입원환자를 위한 환자복 설*

- 계-교통사고로 인한 부상환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경. (1999). *신체장애와 특수의복*. 서울: 교문사.
- 류은정, 박혜원. (2006). 치매 환자복의 실태와 문제점 및 디자인 선호도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6), 618-626.
- 문은희. (2003). *침상 노인 환자복의 현황분석 및 디자인 제안*.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상희. (2004). 환자복의 디자인과 개선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6), 13-21.
- 박혜원, 류은정. (2008). 외상 환자복 하의 디자인 개발. *한국의류학회지*, 32(9), 1418-1426.
- 박혜원, 박인조. (2007). 치매환자를 위한 병원복 디자인 개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11(1), 75-85.
- 박혜원, 배현숙, 류은정, 권재철. (2007). 치매 환자복을 위한 직물 디자인 개발 및 제작-사회적 보호를 위한 심볼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1(7), 1097-1106.
- 송정흡, 송정아. (1993). 다목적 환자복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의료QA 학회지*, 6(1,2), 48-79.
- 신민자, 서경화. (2003). 연령에 따른 환자의 병원 음식 만족도.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13(6), 542-551.
- 유미애, 박옥련. (2004). 환자복의 실태 및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기획.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8(1), 61-76.
- 유효선, 박명자. (2009). 의료용 섬유 의 개발 현황. *섬유기술과 산업*, 13(2), 101-112.
- 이예영, 이윤정, 성화경. (2006). 환자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례 연구-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일반환자복과 산부인과용 가운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12), 9-18.
- 이현미. (2002). 1회용 의료용 의복에 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6(10), 20-30.
- 조진숙, 최진희, 허은영. (2001). 노인여성을 위한 요실금 팬티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5), 856-867.
- 최은숙, 전경숙, 조선주, 이춘지. (2008).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2)-건강보험 급여의 성불평등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경희, 김대년, 김옥태, 김인숙, 김정숙, 심영, 정은희, 조명희, 최종명, 황태주. (2002). *노인성 치매연구*. 서울: 교문사.
- 황라일, 권진희. (2008). 병원 급식 식대 급여화에 따른 입원 환자의 급식만족도 조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3(3), 396-404.
- 황요영, 홍정민, 송정아. (1999). Free-Size 환자복 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47, 113-124.
- Bae, H. S., Park, H. W., Ryou, E. J., & Jeong, K. M. (2008). Improvement of hygienic characteristics of material for patients clothing through treatment with chitosan/nanosilver mixed solu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2(12), 1848-1856.